지방선거 D-1

광주·전남 각 당이 분석한 판세

기초단체장 10여곳 피말리는 접전

우리당 전남 기초장 7곳 우세지역 판단
민주당 광주·전남 기초장 20곳 승리 장담
무소속 광산·나주 등 8~9곳 우세·접전

5·31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막판까지 '피말리는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서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나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7~8곳에 달해 우리-민주-무소속간 3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특히 혼전 지역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올인 전략'에 나서면서 선거전이 혼탁·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그동안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각종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여당 후보를 배 이상 앞서왔다.

◇열린우리당=광주시장의 경우 조영택 후보가 민주당 박광태 후보를 맹추격해 지지도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구청장은 북구와 서구의 경우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남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도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지사는 서범석 후보가 민주당 박준영 후보를 추격하고 있으나 지지도 격차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시장·군수의 경우 후보를 낸 16곳 가운데 담양과 곡성, 완도, 영암, 무안에 이어 고흥과 여수까지 우세지역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최소 7개 지역 이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다른 후보들을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서고 있다며 압도적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광주 구청장의 경우 경합지역인 서구를 제외하고는 4곳 모두 이미 승기를 굳혔다고 장담하고 있다.

전남에선 목포와 순천, 광양, 구례,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광 등 7곳에서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고흥과 여수 등지도 점차 우세 양상을 보여 경합지까지 포함하면 최소 15곳 이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또 무안과 곡성에서도 나상옥 후보와 허기하 후보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상당한 추격을 했다고 밝혔다.

◇무소속=무소속으로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하는 광주 광산과 나주, 함평, 보성, 장흥, 신안 지역 현 단체들은 모두 자신들의 우세를 주장하고 있다. 장성과 영광에서도 우위를 점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화순 역시 초경합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무소속 후보들이 우세 또는 접전이라고 주장하는 선거구는 8~9곳에 달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의 강세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으로 광주·전남에서 당색이 과거에 비해 엷어진데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영택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와 같은 당 소속 광주지역 후보들은 28일 밤 결의대회를 갖고 29일 자정부터 48시간 마라톤 유세에 돌입했다.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29일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후보 등과 함께 서구 전역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층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48시간 마라톤·81곳 릴레이 유세…

막판 부동층 공략 총력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후보는 5·31 지방선거 이틀 전인 29일 막판 부동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는 29일 자정부터 선거운동 마감까지 한 숨도 자지 않고 유권자를 접촉하는 '48시간 마라톤 유세'를 펼치고 있으며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부터 '5개 구청 81곳 거점 릴레이 유세'에 나서며 맞불을 놨다.

열린우리당 서범석 전남지사 후보는 김한길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동부지역을 돌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도 이날 고흥읍장 유세를 시작으로 보성·순천·무안·영암 등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열린우리당=조영택 후보는 28일 오후 10시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서 48시간 마라톤 선거운동을 시작, 이날 하룻 동안 20여 곳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10여 곳에서 유세를 했다.

서범석 후보는 이날 오전 광양지역 출마자들과 함께 광양 옥곡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여수시 여서동 등의 상가와 서교동 서시장 등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박광태 후보는 이날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며 릴레이 유세를 시작했다.

박준영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우리 당에 던지는 표는 사표가 된다"며 "제2의 국민의 정부를 창출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오병윤 광주시장 후보는 이날 광산구 운남사거리 등 10여 곳에서 유세를 펼치며 "민노당은 보수세력의 총공세에 이번 선거 성과를 토대로 진보개혁세력을 결집해 맞서겠다"며 표심에 호소했다.

박웅두 전남지사 후보도 이날 고흥장, 보성 벌교장, 장흥지역 등을 누비며 "며칠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부패와 비리 정당이 전남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심판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한 영 광주시장 후보는 이날 광주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알차고 깨끗한 인물인 한영 후보를 뽑아 광주인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박재순 전남지사 후보도 이날 고흥터미널과 벌교장, 강진터미널, 영광터미널 함평 월야지역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지지성명 놓고 치열한 설전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후보들간 지지성명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고 건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전해지는 고사모 광주 우민회(회장 김광우)가 29일 오전 "광주 발전을 위해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조 후보가 시장이 돼야한다"며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 지지를 결의했다고 조 후보 측이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지역 5개 대학 교수 175명도 "이제껏 시정을 잘 이끌어 왔던 현 시장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광주 미래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박 후보 측이 발표했다.

또 전날 발표된 풍암동 임대아파트 임차인협의회 하방수 회장의 김종식 열린우리당 서구청장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 일부 회장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하 회장의 지지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또 다시 성명을 내고 "지지선언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악의적인 소문" 선관위에 고발

○…송광운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29일 모 장애인단체 간부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며 북구 선관위에 고발했다. 송 후보는 이날 "모 간부가 송 후보 진영에서 장애인 도움 없이도 당선된다고 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버려진 명함 주으며 선거운동

○…전주언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29일 길바닥에 버려진 각 후보들의 명함 등 선거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전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원 20여명과 자원봉사자 30여명 등과 함께 서구지역 주요 거리를 돌며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으며 "선거 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유권자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이같은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 시민께 드리는 성명서 발표

○…열린우리당 김강식 여수시장 후보는 지난 27일 같은 당 김성곤·주승용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시민에게 드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여당의 정치개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청와대내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건의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를 당선 이후 여수에서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발전정책 협약식 갖기로

○…민주당 오현섭 여수시장 후보는 30일 오후 2시10분 여수 서교동로터리에서 같은 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와 '여수 발전정책 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후보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전남콜센터 여수 유치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SOC 조기 확충 등을 위해 민선 4기동안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김한길·최명길 부부 지원유세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영화배우 최명길 부부가 29일 영암읍을 찾아 김일태 영암군수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삼호한라중공업 등지를 돌며 펼친 거리유세에서 "김 후보는 청렴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추진력 강한 영암의 인물"이라며 "J프로젝트 등 영암 발전을 위해 집권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선거구 동명이인 후보 대결

○…후보가 13명이나 난립한 장흥군 기초의원 가선거구에 '이승일'이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무소속 후보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2세의 이승일 후보는 장흥읍장을 지낸 기호 11번의 후보이며 37세의 이승일 후보는 유치면 출신으로 유치청년회를 이끌었던 기호 12번 후보다. 이에 대해 장흥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는 투표시 헷갈리지 않도록 선거공보를 확실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탈당 당원 105명 아닌 6명"

○…열린우리당 담양군당원협의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105명이 탈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으나 사실은 6명만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는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 측근들이 열린우리당 흠집내기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사랑운동 교수단 민주 지지

○…국토사랑운동본부 교수단 100명이 민주당 김청수 신안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광주대 김민웅 교수와 조선대 곽사호 교수 등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무능과 부패, 분열로 전남도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양극화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며 "한나라당의 독재를 막고 견제와 균형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평가

○…광주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30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장애인총연합회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단체장의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평가 결과 및 장애인유권자 행동지침'을 발표한다. 연대측은 "장애인들에게 각 당과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